

행동하는 믿음 II.

의심과 결핍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히브리서 11:6]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NIV)

1.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히브리서 1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한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창조주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창조주의 뜻(의도)이 온전히 반영되었을 때를 말한다.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이다.

여기에 '믿음'에 대한 비밀이 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은 의지와 신념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야겠다는 강한 열망도 아니다. 믿음은 창조주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상태이다.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로 말하면 '건강하다'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창조주의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부족함이 보인다면 당연히 근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드러서 기쁜 것이 아니다. 우리 관점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탕자의 첫째 아들

탕자의 첫째 아들을 보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집 나간 탕자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핵심이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를 결핍과 부족함과 결함이 많은 상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스스로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을 보면 명확해진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아야 이 이야기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

* **첫째 아들** - 첫째 아들은 누가복음 15:27-29절에 보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은 일에 대하여 분개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말한다.

[누가복음 15:29-30]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의 주장을 보자. 객관적으로 볼 때 틀린 말 하나도 없다. 회사 경영 측면이나 공정성에 기반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행동은 당연히 불공정하고 이해하기 힘들다. 오늘 첫째 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아버지를 자신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니 힘들다. 여기에 답이 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3. 이해와 검증을 넘어 - 이해와 검증의 시대

이해는 항상 검증을 원한다. 확인을 원한다.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 비교해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가르치신다.

[누가복음 15:31]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첫째 아들의 반응과 아버지의 대답을 보자.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믿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의 대답을 볼 때 첫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큰 아들은 동생과 비교해 자신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동생은 살진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는 송아지와 비교도 되지 않는 염소 새끼 하나 잡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핍의 문제이다.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의심을 마음에 갖게 했다. 이런 첫째 아들의 말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아버지는 첫째나 둘째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했는데, 스스로 자신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을 힘들어 하셨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4. 아버지께 대한 신뢰, 믿음!

아버지를 신뢰할 때 아버지는 다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내 것이 나 네 것이로다’ 그 말은 “이미 네게 다 있단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는 존재이다.” 즉, “네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너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결핍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너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 신실함 (faithful) / 변함이 없음 -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뻐하신다. 믿음과 기쁨에 대한 예가 아버지와 자녀이다. 아버지가 가장 기쁠 때는 자녀가 아버지를 믿을 때이다. 아버지를 신뢰할 때이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과 같다. 선물은 받으면 기쁨이 있다. 누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기쁨이 올라온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하셨다. 예수님의 칭찬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이며, 그 존재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이다.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보라. 제자들의 고백을 보라. 발 씻김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없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검은 우리들을 무조건 아름답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절대적 믿음을 보라.

5. ‘정’ - 굳이 표현해 보면 한국의 ‘정’이다.

* 한(恨) : 정의 문화

웨스턴과 차이가 있다. 이성, 검증 위주의 의심의 사고방식이 웨스턴 문화이다. 그래서 비판이 강하다. 넘어가는 것이 없다. 그런 문화 위에서 ‘신뢰’가 형성된다. 검증되지 않는 신뢰는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자료와 데이터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 문화는 그렇지 않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 문화를 보라. 조건이 없다. 손주니까 사랑한다. 공부 못해도, 용돈 드릴 수 없어도 사랑한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는 칭찬들이다. 누가 뭐래도 믿는다.

6.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그와 같다. 십자가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검은 것이 객관적 검증의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십자가를 가장 아름답게 본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결국 믿음의 연단 끝에는 위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포만 남는다.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 목표는,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알리고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고 신뢰하는 친밀감을 회복하시기 원하신다. 그 사랑 앞에 다시 불붙기 원하시는 것이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품들을 찬양하게 된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첫째 아들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곳에 돌파와, 공급과, 회복과, 치유가 있다. 그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할 때이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마라. 검은 것이 보여도, 넘어져도, 정죄함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라.